



그리스 로마 신화

# 에로스 와 프시케

기획 유진호  
그림 윤수빈 / 김동현

# 인물소개

## 프시케



에로스로  
한눈에 반하게  
만든 절세미녀로써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사지만 극복하고  
에로스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 마지막엔  
마음과 영혼의 여신이  
된다.

## 에로스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  
장난기가 많은 성격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사랑을 깨닫고 청년의 모습이  
된다.

## 아프로디테



미와 사랑의 여신  
에로스의 어머니이자  
12주신중 하나  
시기와 질투가 많으며  
자신보다 아름다운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

## 페르세포네



봄과 씨앗의 여신으로  
하데스의 아내.  
아프로디테와 사이가  
좋지 않다.

## 데메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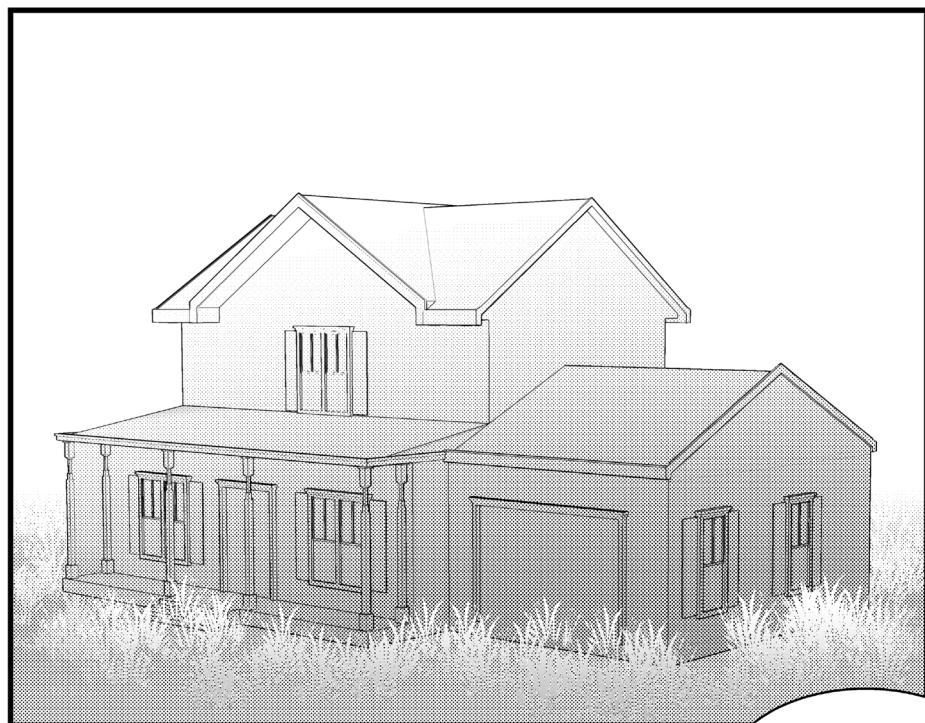


농업의 여신  
프시케를  
불쌍히 여겨  
조언을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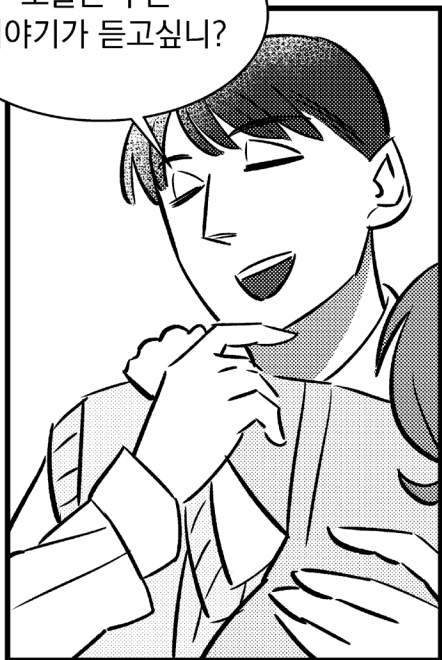
## 언니들



프시케의 언니들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듣고싶니?



에로스와 프시케의  
이야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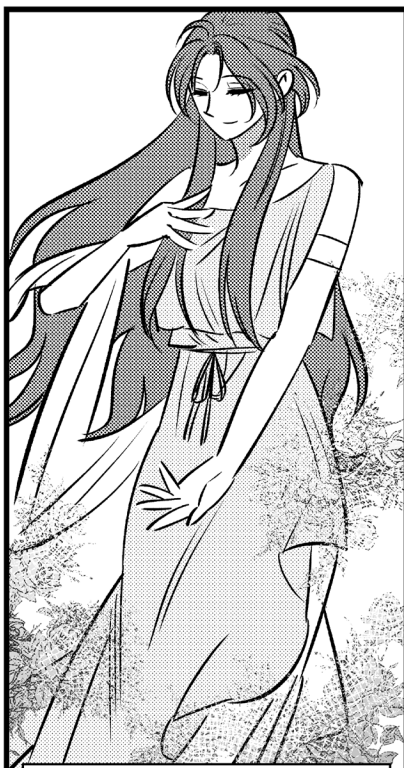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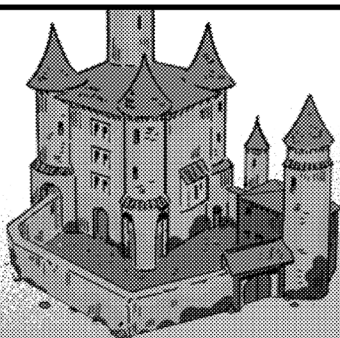


그래, 다들  
자리에 앉으렴.





먼 옛날 어진 왕과 아름다운  
세공주가 있는 왕국이 있었어.



그중 막내 프시케의 미모가  
제일 빼어났다고 해.



그녀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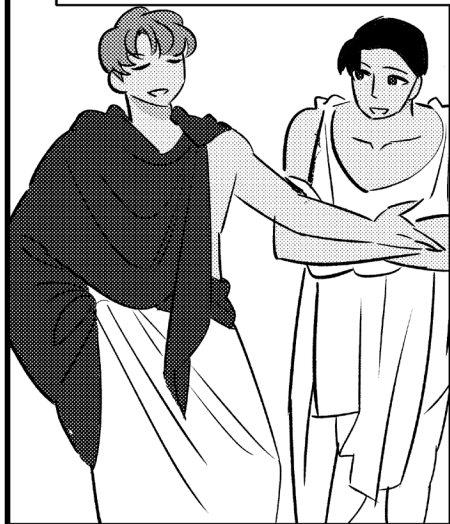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미모 때문에 신의 질투를  
사게 되고 말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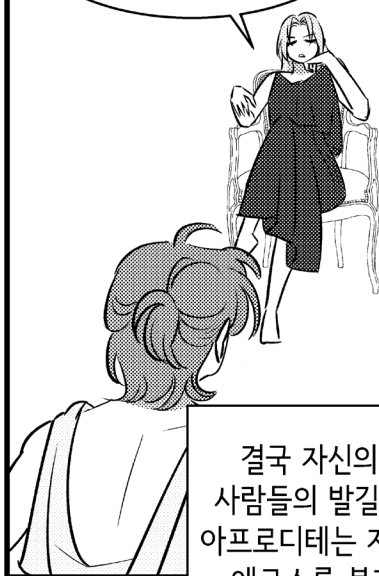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의 수식어는 모두  
그녀를 위해 존재해

근데 한낱 인간인  
프시케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이 줄어든거야



저 오만한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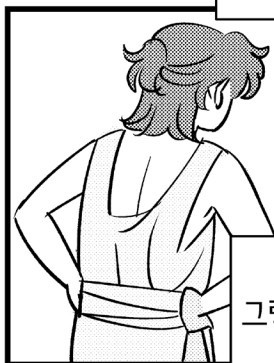
결국 자신의 신전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  
에로스를 불러 명령해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로  
사랑을 관장하는 신으로  
장난기가 많은 신이야.



아프로디테의 명령을 받은  
에로스는 \*금화살을 챙겨  
한밤중에 프시케에게 가지.



그렇게 프시케의 침실에  
도착한 에로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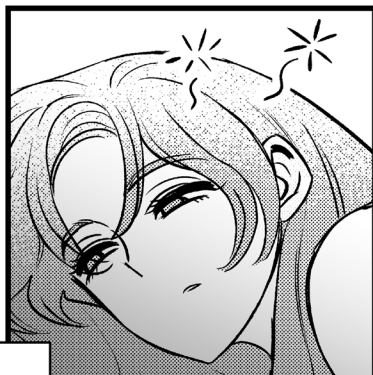


잠든 프시케의 얼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어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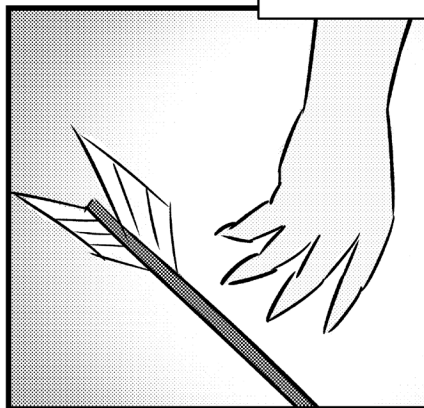




잠든 프시케의 얼굴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거지.



넋을 잃고 프시케를 바라보던  
에로스는 프시케가 눈을 뜨자



깜짝놀란 에로스는 당황하여  
들고있던 금화살을 떨어뜨려 버렸고



금화살은 떨어지며 에로스의 발을 찔러버려



금화살로 인해 프시케에게  
사랑에 빠지게된 에로스는  
청년의 모습이 되었고



프시케의 입술에는 \*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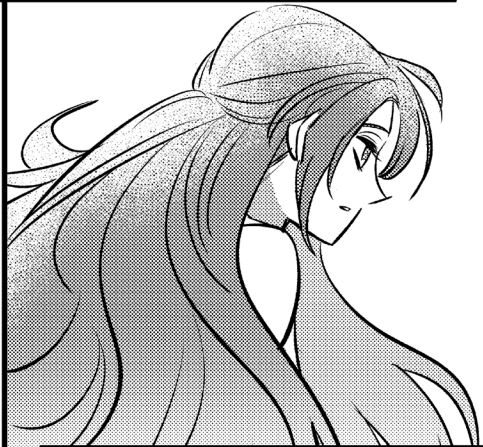


머리에는 \*단물을 바르고



조용히 떠나지

그날 이후 프시케는 더욱 아름다워 졌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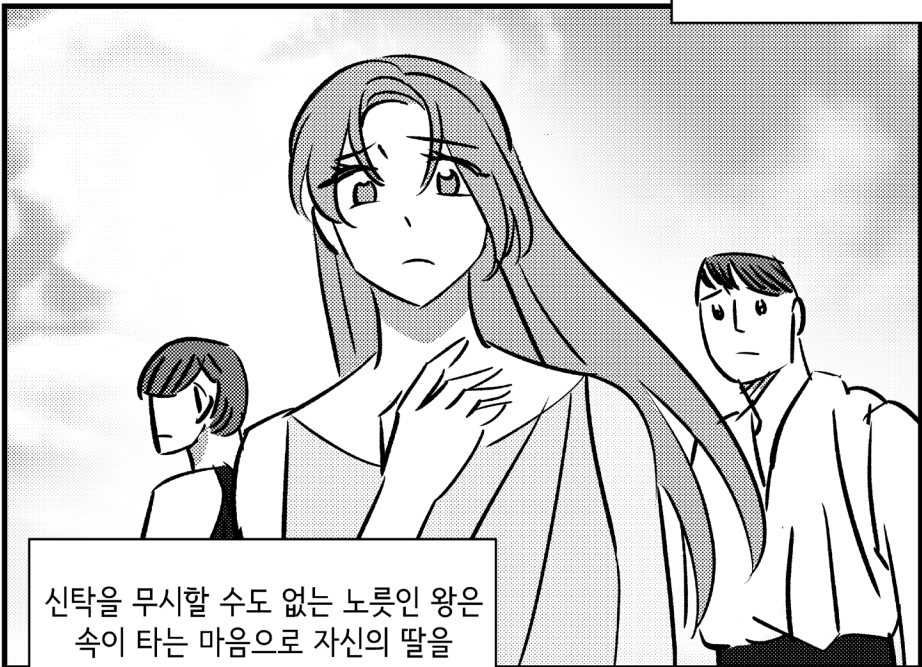


그녀에게 구혼을 하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 처녀는 인간과  
결혼 할 수 없는 운명이니  
피테스산 정상에 데려다 놓으면  
괴물이 신부로 데려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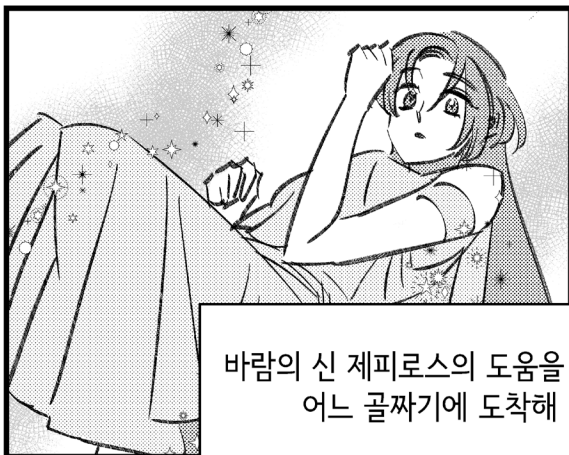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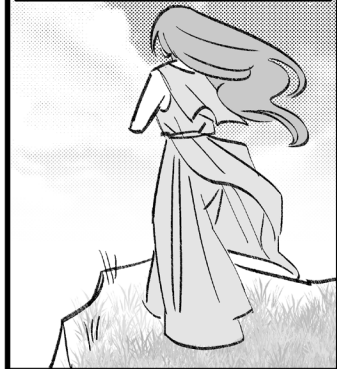


그녀의 결혼을 걱정한 왕은  
아폴론의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아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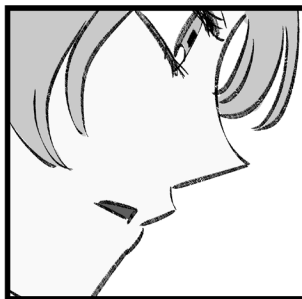


신탁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인 왕은  
속이 타는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산꼭대기에 데려다 줬지

그렇게 산 정상에  
홀로남은 프시케는



바람의 신 제피로스의 도움을 받아  
어느 골짜기에 도착해



도착한 골짜기에는  
자신의 궁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시중을 들어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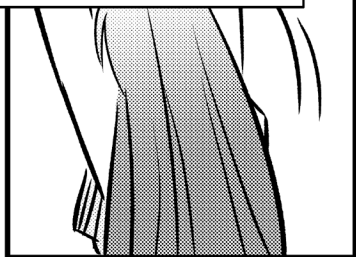
그리고 남편은 밤마다 찾아왔지  
그리고 프시케에게 당부했어.

당신이 제 겉모습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당신이 제 모습을 본다면  
저는 떠나야 합니다.



프시케는 호화로운  
생활에 만족했고  
처음엔 무서웠던 남편도  
사랑하게 되었지.



하지만 남편이 없는 밤에는  
외로웠고, 문득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이 생각났어

그래서 그날 밤  
자신의 남편에게 말했지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죽은줄 알고 걱정하고  
있을 언니들이 너무 걱정되요.

그말을 들은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어.



당신의 마음은 잘 알지만  
언니들이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줄까 걱정되요.



하지만 프시케의 눈물에 약해진  
남편은 끝내 그녀의 언니들을  
왕궁에 부를수 있도록 허락했지.





남편이랑은  
잘 지내니?

그렇게 프시케는 언니들을  
자신의 궁전에 초대했고  
프시케는 언니들과 오랜만에  
재회할 수 있었어



하지만 언니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있는 프시케에게  
질투가 났고  
언니들은 프시케에게  
물었지



남편은 밤에만 들어와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말을 들은  
프시케는 대답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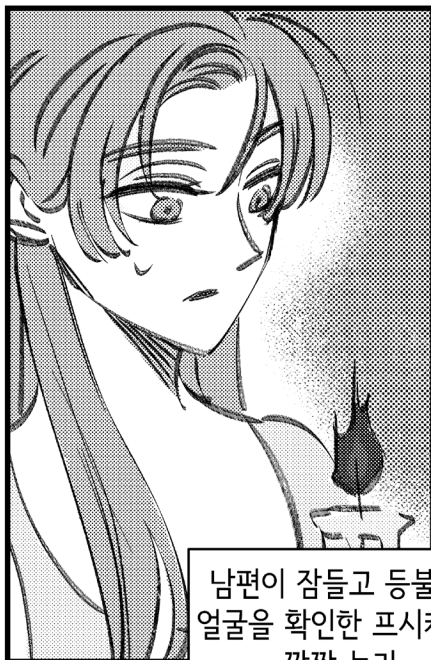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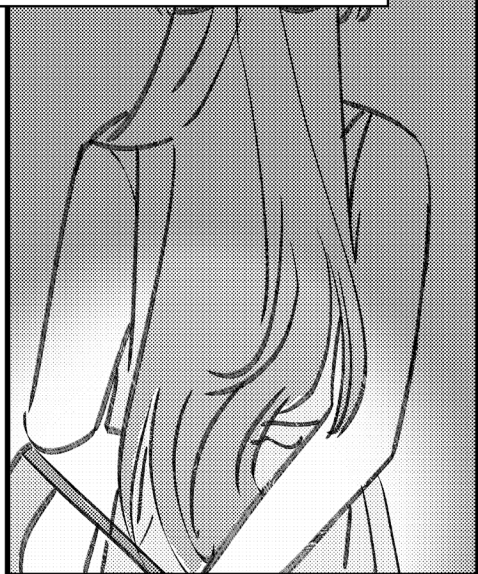
그러자 언니들은  
프시케에게 말했지

낮과 등불을 들고 남편이  
잠들 때 까지 기다려.  
남편의 정체를 확인하고  
괴물이면 낮으로 죽여야한다.



처음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만 찾아오는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지고 결국 언니들의  
조언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

며칠 후 밤이되어 남편이 찾아오고  
프시케는 낮과 등불을 숨기고  
남편이 잠들 때 까지 기다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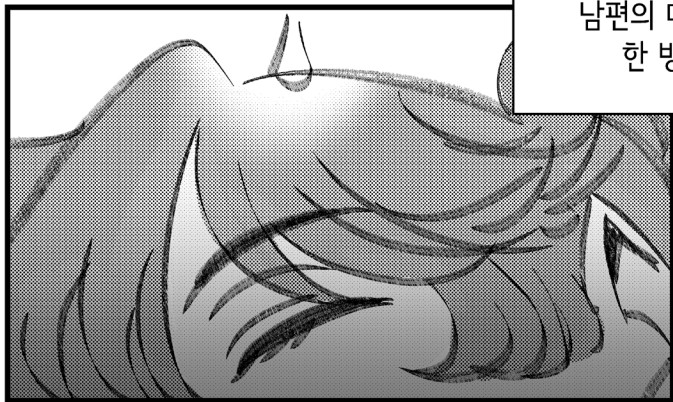
남편이 잠들고 등불로  
얼굴을 확인한 프시케는  
깜짝 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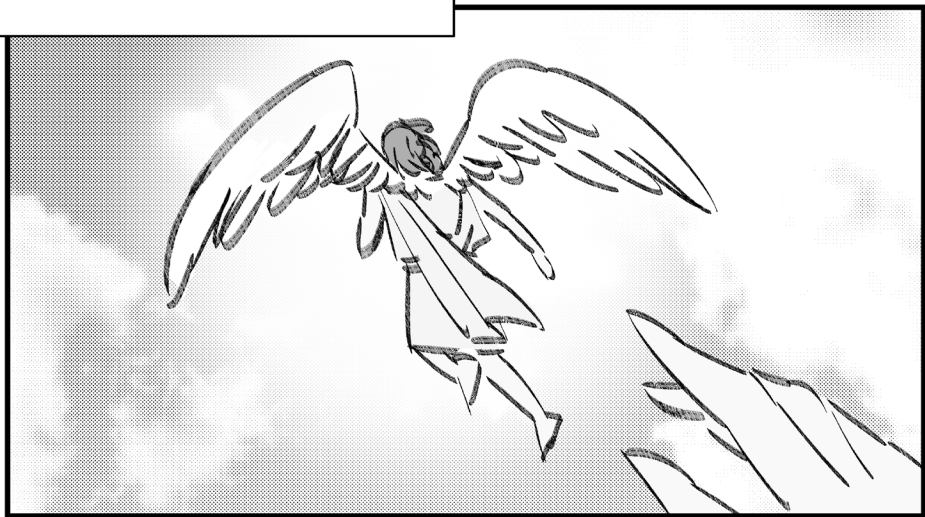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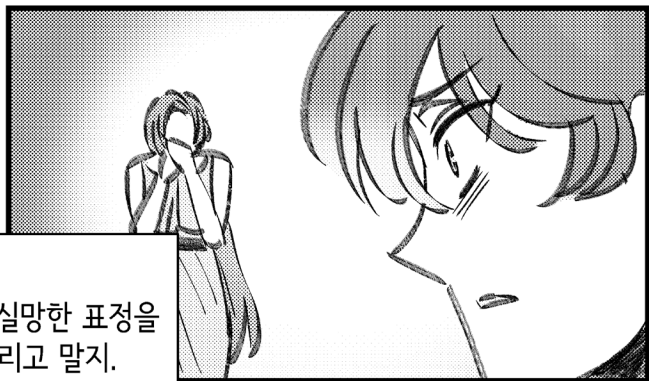
괴물인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엄청난 미소년의 모습을 한  
사랑의 신 에로스였고



그 모습에 낮이 나간 프시케는 실수로  
남편의 머리에 등불의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



그렇게 잠에서 깬 에로스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날아가버리고 말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프시케는  
남편을 쫓아 달려가지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아

어리석은 여인아,  
의심속에 사랑은 피어날 수 없다고  
그리 알렀거만..

넘어진 프시케를 보고 남편은 한마디를 하고 사라지지

프시케는 그렇게 에로스가 사라진 하늘을  
한참동안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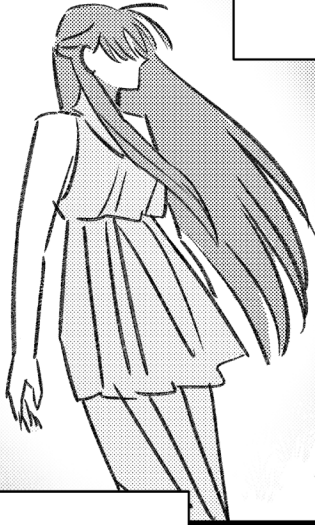


자신이 방금까지 있었던 아름다운 궁전도  
먼지한톨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있었고

그렇게 홀로 남겨진 프시케는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



자신의 잘못으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프시케는  
속죄를 하기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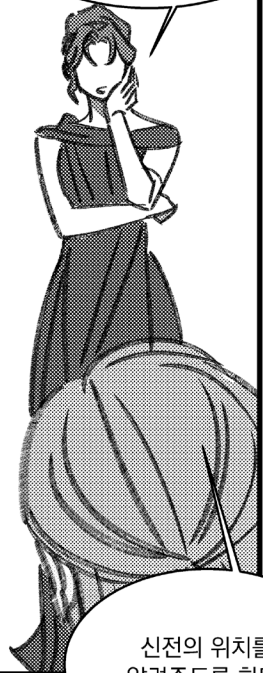


처음 들른 곳은 이름모를 신전인데,  
신전안엔 곡식주머니와 농기구들이  
널브러져 있었어.



프시케는 신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농기구를 정리하는데  
그 모습을 보던 데메테르가  
프시케에게 말을걸지

아이야,  
너의 잘못은 여기서 빌게 아니라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빌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전의 위치를  
알려주도록 하마.



데메테르의 조언을 들은 프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가서  
용서를 빌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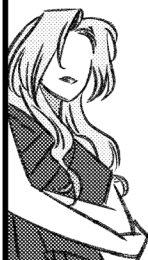


첫 번째 시련은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종류별로 오늘 밤까지  
분류해 놓거라.



그렇게 아프로디테는  
프시케에게  
첫 번째 시련을 내렸어

그러자 아프로디테가  
나와서 말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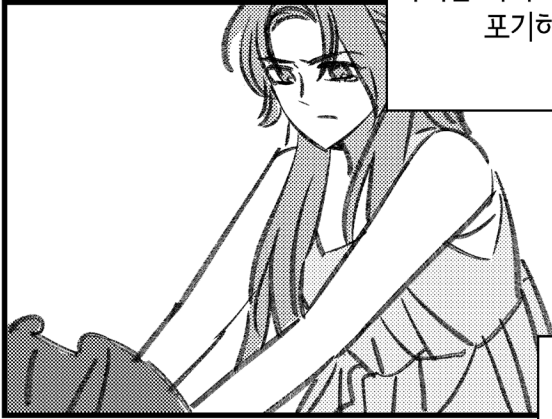


너의 잘못으로 에로스가  
지금 몸져 누워있으니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내가 내는 시련을 극복해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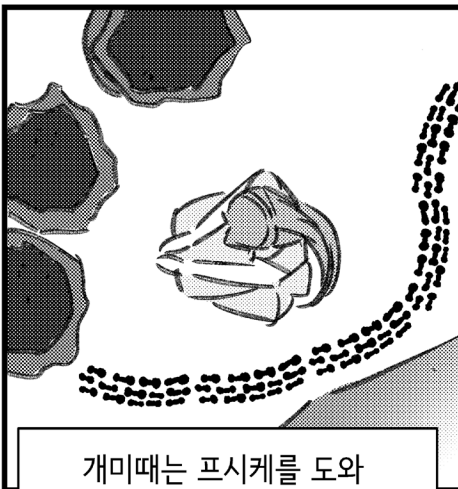
신전 곡식창고는  
어마어마하게 넓었어  
혼자서, 그것도 하룻밤안에  
끝내기에는 불가능했지



곡식을 묵묵히 분류하던 프시케는 눈물이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 할일을 계속 했어.



그 모습을 보고있던 에로스는  
마음이 약해져 자신의 수하중 하나인  
개미떼를 프시케에게 보냈지



개미떼는 프시케를 도와  
하룻밤만에 곡식분류를 끝냈어.

첫 번째 시련을 끝내자  
아프로디테가 와서  
두 번째 시련을 줬지



두 번째 시련은 황금양의  
양털을 모아오는 것이다.



사실 황금양은 사람을 쉽게  
죽이는 괴물같은 양이야.



아프로디테는 프시케가  
양들에게 살해당하도록 한 것이었지



그 사실을 모르는 프시케는  
양털을 구하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갔어



언덕에 도착하자 강의신이  
프시케에게 말을 걸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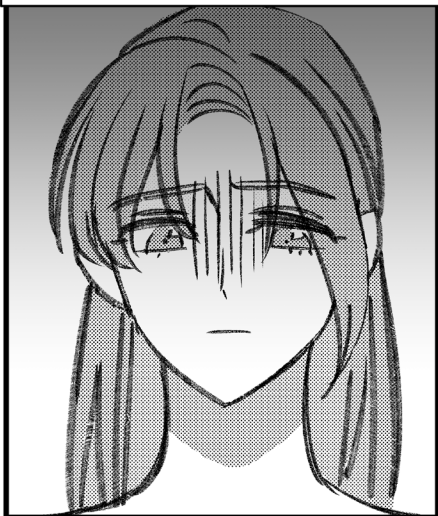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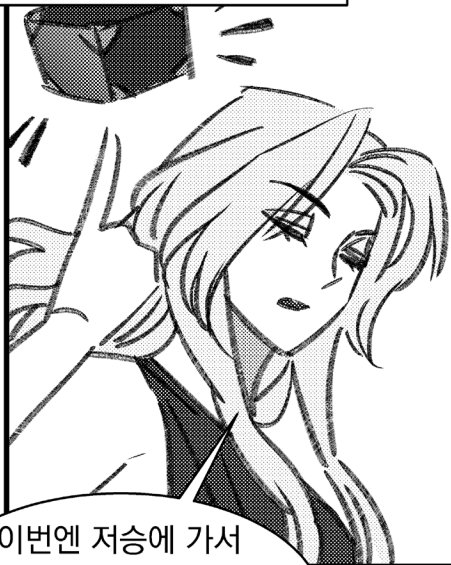
저 양떼들은 정오가 되면  
그늘에 모여  
낮잠을 자니 그때 양털을  
가져오면 편할 것이다.



강의신의 조언을 들은 프시케는 정오가 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자고있는 양들의 털을 한 움큼 모아서  
아프로디테에게 가져갈 수 있었지

프시케가 양털을 모아가자  
아프로디테는 다음 시련을 줬어.

이번엔 프시케도 아프로디테의  
의중을 단번에 깨달았지  
왜냐하면 산자는 저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승에 가려면 죽어야하거든



이번엔 저승에 가서  
페르세포네에게  
저승의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받아오거라

저승에 가는 길과  
안전하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뛰어내리지 말거라.



프시케는 어쩔수 없이 저승에 가기위해  
탑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데  
탑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

탐 안의 목소리의 도움으로  
프시케는 안전하게 저승에 도착했고



페르세포네와 만날 수 있었지

아이야,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면 안된단다.  
그건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야.



페르세포네는 프시케에게 상자를 주며 말했어



상자를 받아 안전하게 이승으로 나온 프시케는  
상자 속 내용물이 너무 궁금했어

결국 호기심에 저버린 프시케는  
상자를 열게되는데



그렇게 프시케는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아



상자속에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영원한 잠이 들어있었지.



하지만 그때 줄곧 프시케를 지켜보던  
에로스가 나타나 영원한 꿈을 다시 상자에 담았고  
프시케는 다시 깨어날 수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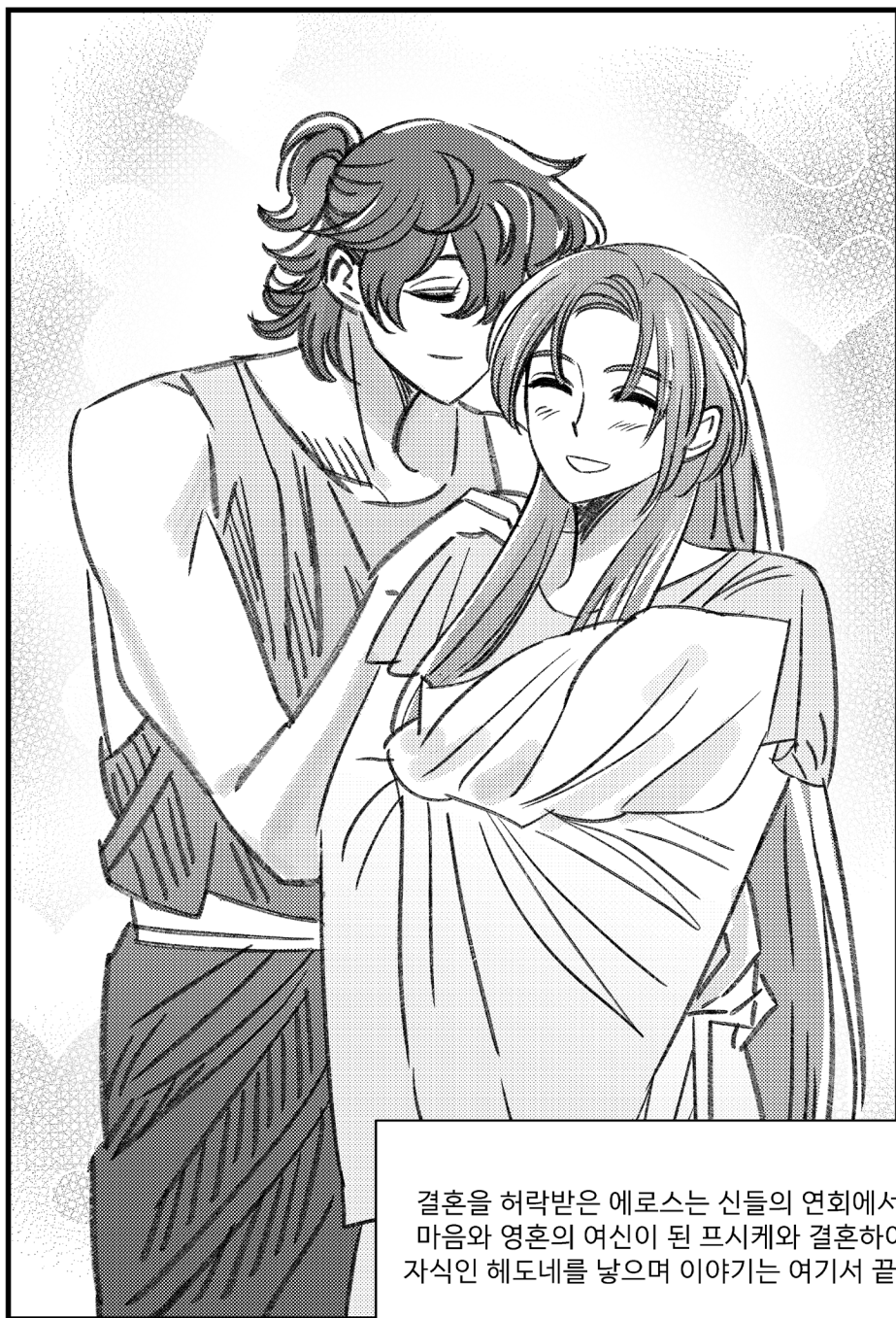
에로스는 다시 깨어난 프시케에게  
시련을 끝마치러 가라고 말하며  
자신은 어디론가 날아가

프시케, 당신은 저희 어머니께 가서  
시련을 끝맺으세요.  
그 이후는 저에게 맡겨요

제우스님!  
저와 프시케를 가엾게 여겨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아간 에로스는 제우스에게 가서  
자신과 프시케의 결혼을 허락받았고





결혼을 허락받은 에로스는 신들의 연회에서  
마음과 영혼의 여신이 된 프시케와 결혼하여  
자식인 헤도네를 낳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



자, 다들 재미있었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과 마음,  
그리고 의심이란다.

맞단다.  
그리스신화의 신들은  
완벽하지 못해서  
질투와 시기도 많지.

네!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더욱  
정감가지 않니?

그래도  
아름답다는 이유로  
저주를 받다니  
너무해요!

근데 프시케는  
잘못한게 없는데  
고생만 한거같아서  
불쌍해요..

하하 그렇지,

자 밤도 늦었고  
이제 다들 자러가자꾸나



